'이몽' · '녹두꽃', 닮은 듯 다른 임정 100주년 드라마

기존에 깊이 다룬 적 없는 역사적 인물 조명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단재 신채호의 말이다.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드라마 2편이 방송 중이다. 기존 드라마에서 깊이 다룬 적 없는 역사적 인물을 조명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를 표현하는 방법은 전혀 다르다. MBC 토요 미니시리즈 '이몽'(극본 조규원·연출 윤상호)과 SBS 금토 미니시리즈 '녹두꽃'(극본 정현민·연출 신경수)을 비교해 봤다.

◇ 근현대사의 비극에서 출발

지난 4일 첫 방송한 '이몽'은 1930년대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한다. 김구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벌였던 독립투사들과 김원봉을 필두로 무장항쟁을 이끈 의열단, 독립을 위한 방법에서 차이가 있었던 이들의 '이도일몽'(二道一夢)을 다룬다. 월북해 김일성 훈장을 받고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무위원회 본부위원장까지 지낸 김원봉은 이념적인 논란이 있었다. 때문에 영화 '암살'의 조승우, 영화 '밀정'의 이병헌 등 기존 작품에선 기능적 캐릭터로 짧게 등장했다. 이와 달리 '이몽'에선 주인공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방송 전 우려 섞인 시선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기억해야 할 이름"이란 것이 윤상호 PD의 설명이다.

지난달 첫 발을 뗀 '녹두꽃'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한다. 올 초 동학농민혁명이 국가기념일(5월11일)로 제정돼 의미를 더한다. 전봉준(최무성 분)의 일대기가 아닌 농민군과 토벌대로 갈라진 이복형제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했다. 동학군 별동대장이 되는 백이강(조정석 분)과 일본 유학 후 조선의 '개화'를 꿈꾸는 백이현(윤시윤 분)이 주인공이다.

◇ 이건 같아…실제가 주는 뭉클함

배경적인 설명을 제외하고 드라마로만 접근하면 둘 다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비극적인 운명을 마주한 이들의 이야기다. '이몽' 속 김원봉(유지태 분)은 확고한 신념으로 의열단을 이끄는 가슴 뜨거운 남자다. 일본인의 손에서 자란 조선인 의사 이영진(이요원 분) 역시 기구한 인물이다. 안정적인 삶을 등지고 위험천만한 밀정의 길을 걷게 됐다. '녹두꽃'도 마찬가지다. 얼자인 백이강과 적자인 백이현이 보여주는 훈훈한 우애는 훗날 두 사람의 갈등을 더욱 극대화 시킬 전망이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이몽'의 이영진, '녹두꽃'의 송자인(한예리 분)처럼 능동적인 여성 캐릭터의 활약이 돋보이는 점도 인상적이다.

역사라는 실화가 주는 힘은 상당하다. 시대적 배경과 구체적인 상황은 다르지만 대의를 위한 결의는 둘 다 비장하다. 피를 토하며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한 '이몽'의 독립투사 에스더(윤지혜 분)나 "관리들이 백성을 사사로이 부리고, 재산을 빼앗는 것도 모자라 징세라는 미명하에 도마의 고깃덩이처럼 난도질 하는 세상"이라는 '녹두꽃' 속 전봉준의 일침은 깊은 울림으로 다가온다.

각각 200억원 정도 제작비를 생각하면 다소 아쉬운 시청률이다. '이몽'은 5~7%대 시청률, '녹두꽃'은 2회가 자체 최고 시청률 11.5%를 기록한 이후 줄곧 6~9%대 시청률(이상 닐슨코리아 전국 기준)이다. 그럼에도 선조들의 노고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 이건 달라…과감한 시도 VS 정통 사극

표현 방식에선 차이가 있다. '이몽'은 좀 더 과감하다. 일본인도 중국인도 모두 한국어로 소통한다. 대사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불필요한 힘을 빼지 않고 본질에 집중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신 방송 앞뒤로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실존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난 4회(30분 기준) 말미에는 박에스더·신채호·지복영·김구를 압축적으로 소개한 안내 화면이 등장했다.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을 주면서 몰입도를 끌어올리는 장치로 작용한다.

'녹두꽃'은 정공법을 택했다. 정통 사극의 만듦새를 보여준다. 동학농민운동을 다루는 첫 드라마인 만큼 역사적 사실에 대한 비중이 크다. 주인공인 가상의 인물 뿐만 아니라 실존 인물인 전봉준, 탐관오리 조병갑(장광 분) 등이 유난히 강렬하게 다가오는 이유다. 전작인 KBS1 '정도전'(2014) 등으로 입증된 정현민 작가의 촌철살인 대사나 당신을 뜻하는 인역 등 지역적인 배경을 설명하는 전라도 사투리도 인상적이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동학농민운동을 이복 형제의 이야기로 풀어내는 '녹두꽃'이나 기존 작품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김원봉을 내세운 '이몽'은 제각각 다른 작품이지만 역사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1000회 맞는 개그콘서트, 공개 코미디의 위기를 고민하다

현존 최장수 코미디 프로그램인 KBS 2TV '개그콘서트'가 오는 19일 방송 1000회를 맞는다. 1000회를 기념하며 1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코미디언 김미화는 "개그콘서트는 한 신인의 커피잔에서 탄생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종재·박형근 PD와 전유성, 김미화, 김대희, 유민상, 강유미, 신봉선, 송중근, 정명훈, 박영진 등 그간 프로그램을 이끈 출연진이 참석해 20년 역사를 돌아봤다. 전유성은 "200회까지 했을 때 '500회, 1000회까지 되길 바란다'는 인사를 들었는데, 당시에는 '헛소리'라고 생각하기도 했다"면서 "1000회까지 오는데 후배들이 정말 수고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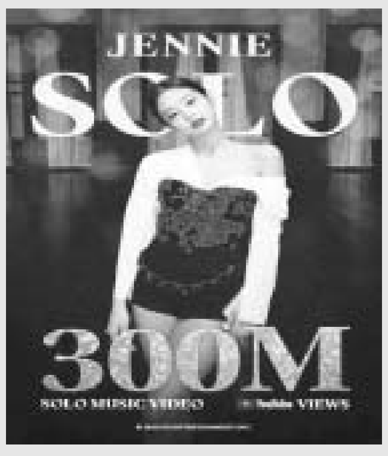
개그콘서트는 1999년 7월 대학로 공연을 방송으로 옮긴 형식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선보인 뒤 두 달 뒤인 같은 해 9월 4일 정규 편성돼 첫 방송을 탔다. 시작 당시 이 방송이 20년간 계속되리라고 예상한 이들은 거의 없었지만 '그까이꺼 대충', '무를 주세요' 등 각종 유행어를 낳으며 주말 안방극장의 대표 프로그램이 됐다. 2003년 28.9%로 최고점을 찍는 등 한때 개그콘서트를 안 보면 대화를 나누지 못할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지만, 예능 트렌드 변화와 유튜브의 인기 등에 밀려 위기론이 대두한 지도 오래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코미디의 위기에 대한 걱정와 응원이 함께 나왔다.

전유성은 "개그콘서트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검증이 끝난 공연이 방송으로 와서 성공했는데, 점점 대학로에서의 검증 없이 방송 PD들이 결정하다 보니 나태해지고 식상해진 것 같다"면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미화는 "시대에 맞춰서 노력한다면 공개코미디가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그콘서트' 1000회 특집은 오는 19·26일 2회에 걸쳐 방송된다. 원 PD는"개그콘서트를 이끌어온 것은 연출자가 아닌 전적으로 코미디언의 힘이다. 이들의 저력을 믿고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니, 'SOLO' MV 3억뷰 돌파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SOLO' 뮤직비디오로 한국 여자 솔로 가수 최초 3억 뷰의 주인공이 됐다.

14일 오전 4시께, 블랙핑크 공식 유튜브에 게재된 제니의 첫 솔로곡 'SOLO' 뮤직비디오는 6개월여 만에 조회수 3억 뷰를 넘어섰다. YG엔터테인먼트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특별히 제작된 포스터를 공개, 팬들과 기쁜 소식을 나눴다.

블랙핑크의 솔로 프로젝트 첫 주자로 나선 제니는 지난해 11월 12일 'SOLO'를 발표했다. 해당 뮤직비디오는 공개 23일 만에 1억 뷰를 넘으며 한국 여자 솔로 가수 최단 기록을 경신했다. 기세를 이어 각각 90일, 182일 만에 한국 여자 솔로 가수 최초로 2억 뷰와 3억 뷰를 연이어 돌파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앞서 지난 11일 블랙핑크 '뚜두뚜두' 뮤직비디오가 8억 뷰를 돌파, K팝 그룹 최초이자 역대 최고 조회수 기록을 세운데 이어 제니가 여자 솔로로서 최고의 성적표로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제니가 속한 블랙핑크는 '뚜두뚜두'(8억 뷰), '마지막처럼'·'붐바야'(5억 뷰), '킬디스러브'·'불장난'·'휘파람'·'SOLO'(3억 뷰), 'STAY'(1억 뷰)까지 데뷔 후 발표한 8개의 뮤직비디오가 모두 억대 뷰 타이틀을 거머 쥐었다. 특히, 각 뮤직비디오는 꾸준히 사랑받고 있어 조회수 앞자리가 곧 바뀔 예정이라 추가 기록 행진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블랙핑크는 안무 영상마저 '억 소리' 나는 기록으로 전 세계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하고 있다. '뚜두뚜두' 2억 뷰, '마지막처럼'·'붐바야'·'SOLO CHOREORAPHY UNEDITED VERSION'·'불장난'은 1억 뷰를 달성했다.

블랙핑크는 최근 6개 도시 7회 공연의 북미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오는 18일 암스테르담부터 21일 맨체스터, 22일 런던, 24일 베를린, 26일 파리, 28일 바르셀로나 등 유럽 6개 지역에서 월드 투어를 이어간다.

'컴백' 갓세븐, 타이틀곡은 'ECLIPSE'

그룹 GOT7(갓세븐)의 새 앨범 타이틀곡은 'ECLIPSE(이클립스)'로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 수장 박진영이 작사, DEFSOUL이란 이름으로 작사, 작곡을 하고 있는 JB가 작사, 작곡에 참여한 곡으로 밝혀졌다.

JYP는 GOT7이 20일 새 앨범 'SPINNING TOP : BETWEEN SECURITY & INSECURITY(스피닝 탑 : 비트윈 시큐리티 & 인시큐리티)'를 발표하고 6월부터 2019년 월드투어에 돌입한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

이에 JYP는 14일 0시 GOT7의 각종 SNS 채널에 새 앨범 'SPINNING TOP'의 트랙리스트가 담긴 이미지를 공개하고 타이틀곡 및 수록곡들에 대한 정보를 알렸다.

이에 따르면 타이틀곡 'ECLIPSE'는 2번 트랙에 포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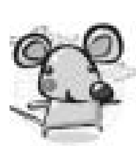
또 새 앨범에는 CD에서만 들을 수 있는 'ECLIPSE'의 인스트루멘털 음원을 포함해 총 7트랙이 담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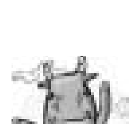
매 앨범마다 작사, 작곡에 참여하며 음악적 역량을 뽐낸 GOT7 멤버들이 이번에도 전 트랙의 작사, 작곡에 참여해 각자의 음악적 색깔을 담았다.

베일에 싸여있던 타이틀 곡명 'ECLIPSE'의 공개는 아가새(팬덤명)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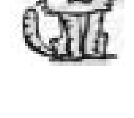
뉴시스

오늘의 운세 2019년 5월 15일 수요일 (음력 4월 11일)


▶쥐띠 참고 기다리는 것에도 한계가 있는 법. 더 큰 상처 받지 말고 상대에게 대응할 것. ㄱ, ㅂ, ㅇ성씨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딴 곳에 눈길주기 이제는 그만둘 것. 하는 일에서 좀 더 성의를 보인다면 길은 얼마든지 있다. 자만은 금물. 붉은색이 길.


▶소띠 잘못된 생각으로 당신만 울게 될 수 있다. ㄱ, ㅅ,ㅇ, ㅊ성씨 사랑에 국경도 없다지만 열 살 이상 나이차는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해 결정하라. 2, 5, 9, 11월생 투기는 오전 중에 승부를 걸면 기쁨이 크겠다. 미혼자 늦은 시간 외출을 삼갈 것.

▶호랑이띠 도전하라. 길은 많다. 4, 7, 10월생 자신만만해 하던 건강과 사업이 잠시 힘들다고 주눅들지 마라. 하늘을 도려낼 것 같던 기백은 어디 갔는가. ㄴ, ㅈ, ㅍ, ㅎ성씨 자신감과 용기로 싸우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 남쪽이 행운.


▶토끼띠 하고 있는 일에서 갈등이 크겠다. 2, 7, 11월생 자신의 고집대로만 하지 말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서 검토해 본 다음 실행하라. 동업자가 있다면 그 사람과는 뜻이 맞지 않아 더욱 힘이 들 수. 토끼, 뱀, 닭 띠를 함부로 대하지 말 것.

▶용띠 안 되는 것 잡고 있지만 말고 과감하게 변동해 보라. 길이 있겠다. 1, 3, 6, 8월생 실력은 있지만 손에 든 것 없이 뛰어드니 답답할 뿐이구나. ㅂ, ㅅ, ㅇ성씨 푸른색 옷으로 용기를 얻어 힘차게 전진함이 좋을 듯.

▶뱀띠 4, 9, 11월생 무엇인가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다고 헤매이다 잃지 말라. 잡을 것 잡고 버릴 것 버리는 현명함도 필요한 때. 몸과 마음 지친 상태구나. ㄹ, ㅇ, ㅈ성씨 금전관계로 구설수가 있다. 모든 것 버리고 남는 것 아무 것도 없는 격.

▶말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두뇌지만 가까이 하는 자의 마음을 읽을 줄 모르니 서로가 서로에게 벽을 둘 수 있다. ㄱ, ㅂ, ㅊ성씨 생업에 충실한 것도 좋지만 가정에 더욱 신경써야 할 듯.

▶양띠 혼자의 능력으로는 가족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힘들다. 같이 사는 사람과 힘을 합칠 것. 1, 2, 7월생 봉사와 희생정신은 좋으나 남의 일에 참견하지는 마라. ㅅ, ㅇ, ㅍ, ㅎ성씨 애정과 금전 관계로 구설 따를 듯.

▶원숭이띠 쥐, 범, 돼지 띠의 마음을 헤아려 주어야 화목해질 듯. ㄱ, ㅅ, ㅎ성씨 신경 쓰이는 채무 있으면 빨리 해결하라. 관재수 따른다. 2, 5, 11, 12월생 내 것도 아니면서 내 것인 양 사용하다 큰코 다칠 수. 매사 언행을 조심할 것.

▶닭띠 가족을 편안하게 하려면 고집대로 밀고 나가지 마라. 2, 4, 7, 11월생 무슨 일이든 속단하지 말고 계획을 완전히 세운 뒤에 변동할 것. 애정 또한 상대를 잡으려면 이해과 희생이 따라야겠다. ㅇ, ㅈ, ㅌ성씨 나이차와 직업 탓에 갈등 있을 듯.

▶개띠 상대를 제압하려면 진정성을 보이고 처세를 계획성 있게 해야 한다. ㄱ, ㅂ, ㅇ성씨 성급함을 자제하고 서서히 지혜롭게 대항하라. 1, 2, 8월생은 말, 닭 띠가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할 것. 없으면 없는 그대로 대처하라. 검정색은 삼가.

▶돼지띠 오해와 속박도 하루이틀이지 힘겹겠구나. ㅁ, ㅂ, ㅅ성씨 주변사람과 의논해서 협조와 이해로 마음을 키움이 좋겠다. 2, 5, 6월생 검정색은 해를 초래하니 피하라. 변동하려는 사업은 한쪽 일이 풀리지 않아 가슴 아플 뿐이다.